

“日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 + α’ 대응”

도, 어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해양수산분야 세부대응 매뉴얼 수립 등 논의
“인력·예산·시간 30% 더 투입… 전담조직 신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가까워 오며 제주 수산업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 방침을 ‘정부 대책 플러스알파’로 설정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대책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희현 제주도 정부부처사가 주재한 가운데 수협 조합장, 수산 관련 단체장 및 경제·관광·농업·환경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정부 동향과 도내 주요 추진상황 공유, 제주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웅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대한민국의 수산업과 어촌 붕괴를 일으키는 문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특별보증금제, 어선 감척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성 수산물수출협회장은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 벌써 소비위축이 시작되고 있다”며 “회원사들은 직원들에 대해 유급휴직과 권고사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의 기초를 ‘정부 대책 플러스알파’로 세웠다. 정부 대책보다 30% 더 인력과 예산, 시간을 투입해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수산물 먹거리 안전 및 소비 위축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세부 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매뉴얼에는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재난 상황별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1단계(관심 단계=방류 예정 6개월 전. 상시 대비 단계) 2단계(주의 단계=방류 징후 6개월부터 방류 예상 5-10일 전후. 7월 초·중순) 3단계(경계 단계=방류시~방류 후 6개월) 4단계(심각 단계=방류 후 6개월~계속)로 나뉘어 계획이 짜여졌다.

각 단계 별 지자체 대응 대책을 보면, 2단계 주의 단계에서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대정부 요청 등 제주수산물 안전 인증제 및 알람이 도입 어업인 현장 체험형 지원 방안 마련 등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및 용자금 상환 유예 등 해녀 어업인 안전·안심 조업 방안 등을 추진한다.

3단계는 원전 방류가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설정했다. 3단계 세부 조치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금계국의 화려한 자태 16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변에 노란 금계국이 만개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으로, 높이 30~60cm의 다년생 속근초화이다. 이상국기자

본부 상황반을 꾸리고 원전 오염수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대책본부 확대 시점은 오염수 주의보 발령 범위,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국장이 판단하게 된다. 원전 오염수 대응 일일 상황보고도 실시한다. 피해 발생 시 기초 및 합동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4단계 심각 단계는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이 실제 발생할 경우로 설정됐다. 세부 조치내용을 보면, 도

는 주말 등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상황대처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전 오염수 경보 발령 및 일일 속보를 제공하며, 시·도별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해 시·도 유관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되는 등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내 학교 전기료 증가율 전국 최고 1~3월 59% 올라… 정부 2분기 인상방침 부담 가중

정부가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썬투고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3월 제주 지역 학교들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억원에서 올해 2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억원,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했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

으로 집계됐다.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1~3월 전기요금 15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4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3억5000만원에서 올해 4억2500만원으로 늘었다. 1~3월 전기요금 증가율을 보면, 지난 1월엔 전기요금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엔 전년 대비 -2.1%, 3월엔 43.6%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달 말까지는 3분기(7-9월) 전기요금 조정여부도 결정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내 학교들의 부담이 대폭 늘 전망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제30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구분	포상 내용	선정방법
대상	1명(팀) 상금 300만원	▶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최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명 자료 첨부 ▶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우수상	1명(팀) 상금 70만원	
학교 부문	학교(최우수상) 1개교 상금 100만원 교사(최우수상) 1명(팀) 상금 70만원 학생(최우수상) 2명(팀) 상금 50만원 초등부 30만원	시상일자 및 장소
한라환경 UCC 공모전	우수상(1팀)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1팀) 상금 50만원 중등부 최우수상(1팀) 상금 5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1팀) 상금 30만원	2023년 6월 16일(금)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shkim@ihalla.co.kr)로 접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40, 2543 / 팩스: 064)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0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Jeju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어린이집·유치원 '불거리' 증가... 3면 / 해수욕장 조기 야간 개장?... 4면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김만덕나눔 적금

‘나눔실천 1계좌 갖기 운동’

#예금과목: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가입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가입금액: 월 1천원 이상 ~ 5백만원 이하

1인 1계좌 **영업점, 비대면채널- JBANK, 모바일월 신규 가입 가능**

#이자율 (12개월, 24개월) #우대이자율 (아래 1,2,3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1.5% 우대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기본이자율	연 3.80%	연 4.00%
기본이자율 + 최고 우대이자율	연 5.30% (우대이자율 최고 1.5%)	연 5.50% (우대이자율 최고 1.5%)

※ 예금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 기부금 출연 신청 고객 **1.0% 우대**
적금 만기시 세금 납부 후 이자의 3.0%를 (재)김만덕재단으로 기부금 출연 신청한 고객 (단, 중도해지 예금인 경우 기부금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 김만덕나눔 적금 추천인(1인에 한하여 적용, 개인고객에 한함) **0.3% 우대**
신규 가입시 제공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본 상품 가입시 입력할 경우 입력자와 피추천인 각각 우대되며 추천인 번호 입력 우대 적용 가능 기간은 계좌해지 전까지
- 미성년자, 고령자 **0.2% 우대**
이 적금 가입 고객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 적용소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증을 받으며, 보증을 받은 금융기관은 예금보장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한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은행 홈페이지(www.jebank.com) 또는 스마트폰앱센터(1588-0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감시인 심의결과 제2023-02-171호(심의일자:2023.03.31, 유효기간:2023.03.31~2024.12.31)